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Ⅲ

The Bible has the secret that the human body does not die

How hard living are you to come to this foreign country from 11,000 kilometers away? Today, continuing from last week, this man would like to continue the sermon under the title, The Bible tells the human body's secret not to die. 안녕하십니까? 이역만리 타국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The one who knows how to match the whole Bible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Bible 성경말씀의 전체를 짝을 맞출 줄 아는 자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

There are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s Bible today. However, no one can interpret the Bible right unless one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Isaiah 34:16 says, "Look in the scroll of the LORD and read: N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t one will lack her mate. For it is his mouth that has given the order, and his Spirit will gather them together."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find and match its mates in this Bible except those who receive the Holy Spirit. 오늘날 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짝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 짝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erefore, to determine whether someone is the protagonist of the Bible or not, the one who knows how to match the whole Bible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Bible. However, many Christian branches interpret the Bible from their viewpoint: and analyze the Bible in their way, saying that they are orthodox. 그런 고로 성경의 주인공인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지 하는 것은 성경말씀의 전체를 짝을 맞출 줄 아는 자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정통이니 뭐 직통이니 하면서 이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However, if we examine these words of the Bible a little more deeply, there is no doubt that they are the words of God. Also, since these words of the Bible are the words of God, they are about God, not sinners. 그러나 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으며 또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이것은 죄인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About the theme, "The Bible tells the secret of the human body not to die," What kind of existence man himself was initially, that man himself was God, is recorded in the Bible. That means that Adam and Eve were in the image of God. To be made in the image of God does not mean that they are like God, but that



1987년 10월 11일 뉴욕 한국교포방송사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총 4회 중 3회차 방영된 조희성 총재님의 설교 장면

they are identical to God.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말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었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a unified world, and the kingdom of God is the kingdom of truth, there is truth in one, and therefore truth itself is God. There is faith in one, and in one, there is eternal life that never dies.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일원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진리의 세계인 고로 진리는 것은 하나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신인 고로 그러므로 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The Bible talks about eternal life from verse to verse. If you look at John 11:25,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Also, in John 6:49, It is written that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nd died, but whoever eats my flesh and blood will never die.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e human body does not die. 그러므로 성경은 구절구절이 영생을 논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있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요한복음 6장 49절에 가서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

하느냐 이것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Also, as this man said last week, it is written that man will die for his sins and go to hell because of his sins. When a person dies, he dies because of his sins, and he dies because he cannot solve his sins. There is such an opposite meaning that we cannot die if our sins are resolved, but people who have not received the Holy Spirit read this Bible, so they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Bible. Therefore, this Bible is God's word and expresses God's will. God's purpose is recorded, and God's will is recorded.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죄 값으로 죽은 고로 죄 때문에 죽은 고로 죄를 해결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바로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반대 의미가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고로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꾀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It is not just the saying that Adam and Eve took on the image of God. God says to everyone "Walk in God." It has the opposite meaning that the current spirit of self-consciousness of the 'I' is not the spirit of God. 원래 아담과 해와가 하나

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남게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주체가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Bible clearly states, "What is the spirit of the self-consciousness of 'I'?" Therefor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As this man said before, in James 1:15, "lust has conceived, an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Greed itself is sin, sin itself is death, and a man dies because of lust. Therefore, greed itself is not greedy. Becaus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greedy,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a sin, which means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무슨 영이나? 하는 것이 성경에는 똑똑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욕심 자체가 죄요 죄 자체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다,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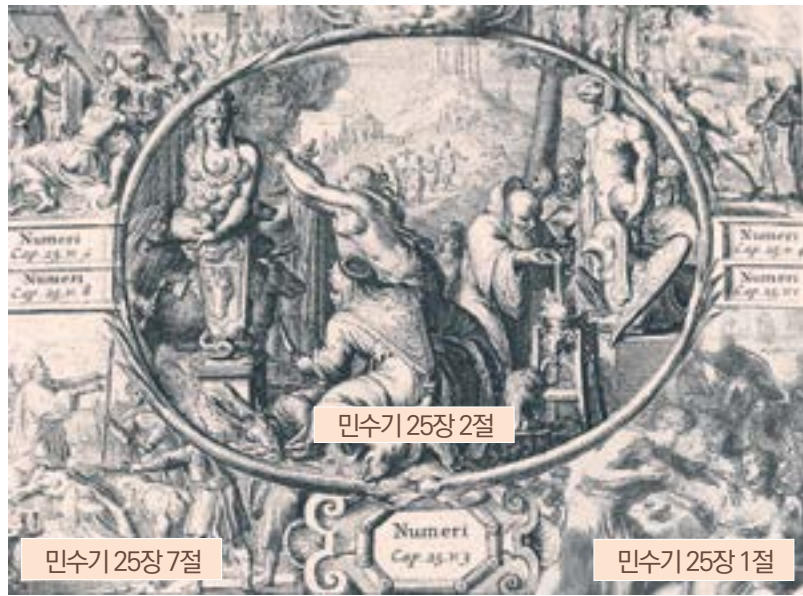
(9)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세의 죽음을 재촉함

(9)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세의 죽음을 재촉함

출애굽 40년 11월(스밧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올에서 가까운 시밧에 머물렀습니다. 모압의 시밧에는 모압 원주민보다도 미디안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출신의 모압여자들은 부르카(burqah)를 착용하여 얼굴과 온몸을 가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부르카라는 베일 속에 있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눈망울이 더 크고 콧날도 오뎅하며 늘씬한 몸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 짐을 삼키며 음욕을 품었습니다.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란한 마귀 신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의 신에게 점령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스스로 모압인들의 제사에 참여하여 그들의 바알 우상에 절하고 부정한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우상에게 올렸던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모압의 여자들이 행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밧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밧에서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비느하스의 창

그때 바올에서 온 모압의 제사장인 이스라엘의 행음을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음을 멈추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유부녀를 강탈하라고 가르쳤소? 이스라엘의 범죄를 묵도(目睹)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외면할 것이오"

그러자 미디안의 유부녀 고스비를 강간하던 시므리(Zimri)가 발발 일어나 창을 들고 바올 사람의 제사장에게 달려들어 그 제사장의 배를 찔러 관통시켰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의 지도자였으며, 그가 강간한 고스비는 미디안의 다섯 가문 가운데 한 가문의 수령(首領)인 수르의 딸이

였습니다.

수르의 시집간 딸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강탈당하자, 수르를 위시(爲始)한 미디안의 다섯 가문'의 수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섯 가문의 수령은 예위와 레겔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모세를 찾 1 미디안의 다섯 가문: 미디안 족속은 다섯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다섯 가문의 유래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아들 다섯(시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을 얻었고 그 다섯 아들 중에 미디안이 다시 다섯 아들(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을 낳았는데 그 다섯 아들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다섯 가문이 형성된 것이다.

아가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낱알이 고해 바쳤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서자 미디안 자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행음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자, 마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염병을 내려 이만 사천 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수르의 딸 고스비를 강탈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를 찾아내어 창으로 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고 고스비를 그의 아내 수르에게 인계하자, 비로소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를 누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모세에게 고자질한 미디안의 다섯 가문의 수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첩 레아가 낳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의 족속에 속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칼을 들고 미디안의 다섯 가문의 수령을 뒤쫓아 가서 그들 다섯 수령을 모조리 죽이고 모압에 거주하는 미디안의 남자들이 보이는 데로 도륙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정들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모두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을 다 불

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장정들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사로잡은 아이들 중에 여아는 남겨두고 남아는 모조리 죽이고 또 결혼하여 남편을 둔 유부녀는 다 죽이고 새해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이스라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려두는 저질스런 범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새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새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추악한 범죄를 목격한 모세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크게 낙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간언하기를, "내 주여, 저가 이제 백스무 살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늙어 기력이 없는 몸으로 더 이상 성소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원컨대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이를 선택하여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는 지난 40년간 너의 시중을 들었으며 성막에서 떠나지 않았나니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직권을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 여호와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할 것이니라. 그러즉 나 여호와 의 명을 받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젤라